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OF ADVENT

주후 2020년 12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 43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0 번 빌립보서 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24:13-17, 28-35	장경국 집사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5) – 동행함으로”	김일선 목사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Companion)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고,

우리는 너무 자주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으며,

우리는 너무 빨리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다시금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날마다 기뻐하며, 매순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5:16-1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글개역 **눅 24:32**)

“They asked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 (NIV **Luke 24:3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3 (주일)	12/14 (월)	12/15 (화)	12/16 (수)	12/17 (목)	12/18 (금)	12/19 (토)
	대하14,15	대하16	대하17	대하18	대하19,20	대하21	대하22,23
본문	계4	계5	계6	계7	계8	계9	계10
	학2	속1	속2	속3	속4	속5	속6
	요3	요4	요5	요6	요7	요8	요9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16 오후7:30)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민36:1-13)
토요 새벽기도회 (12/19 오전6:30)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야”(시19:1-14)

지난 주일(12/6)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4) – 하나됨으로” (엡4:1-6)

우리가 서로 하나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조건 “하나되라” 또는 무조건 “서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1)첫째,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2)둘째, 우리에게는 또한 **온유함**이 요구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갈5:23) 중 하나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마5:5) 중 하나로서, (반드시)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셋째,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과 **받아들임**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므로, 참음의 분을 보여주셨음(딤후3:16)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중 너무 완벽해서 누구로부터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또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그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없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항상 **1)겸손함**과, **2)온유함**과, **3)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